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9월 17일(목요일) 뉴시스, 「“백신이 없어요” 품귀...독감 무료접종 차질 빛나」 보도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이른 독감에 국가예방접종 차질 우려」와 관련하여

- 정부는 '26-'27절기 국가예방접종(접종 우선순위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14세, 임신부가 대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약 1,233만 도즈의 정부 조달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했으며, 조정된 일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직접 구매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공급되는 소아 NIP 백신(약 200만 도즈)도 제조사·수입사가 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 초기 원활한 백신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조달 백신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사노피가 계약한 공급 물량 가운데 50만 도즈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급 차질 우려」와 관련하여

- 정부는 사노피社의 사정으로 초기 공급물량이 납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IP 백신 적기 공급을 위해 조달 물량 50만 도즈를 녹십자社 제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정부 조달 물량 약 1,233만 도즈는 변동 없이 유지되며, 사노피社가 정부에 납품할 예정이던 50만 도즈는 민간 접종을 위해 제공되므로, 이러한 조치가 민간 접종 물량에 변화를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조달 물량의 대체 조치는 9월1일 보도설명 자료에서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제조사·수입사와 협의하여 백신 37만 도즈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전량 민간 접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가 공급 가능 물량과 시기에 대해서도 제조·수입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수입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이 이달 8~10일 이뤄졌고 배송에 통상 1주일 이상 걸리며 이번에는 추석 연휴(9월24~26일)까지 겹쳐서 백신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와 관련하여

- 예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국가예방접종 일정 조정은, 백신 공급 여건과 추석 연휴 전후의 출고·배송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 물량은 9.21일 접종 개시일 이전에, 어르신 접종 물량은 10.6일 접종 개시일 이전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관내 위탁의료기관 간 백신 이전을 허용한다는 한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와 관련하여,

- 정부가 조달하여 현물로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접종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조달업체를 통해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절기 국가 예방접종 기간 중 총 12회의 재분배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요와 재고를 확인하여 필요한 기관으로 물량이 공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접종 시기에 백신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백신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책임자	과 장	이승묵 (043-719-6810)
	백신수급과과	담당자	사무관	홍미숙 (043-719-6812)

